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7월 후원미사는 15일, 8월 후원미사는 19일, 9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5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4,838,979	전월아월금	70,000
지 로	2,108,570	우리은행	4,649,380
국민은행	4,412,000	하나은행	946,000
조흥은행	95,000	신한은행	1,000,000
외환은행	532,500	제일은행	145,000
농 협	1,164,000	기업은행	735,000
우 체 국	45,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교내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000,000	장기수선총당금, 운영관리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53,979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4,878,979	잔액(이월금)	30,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9. 06 / 제36호

펴낸날 2019. 6. 17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신부가 되면서 스스로 결심했던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신부로 살면서 이사를 갈 때 이삿짐 트럭을 불러야 할 만큼 짐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일 년간 보지 않았던 책들, 일 년간 입지 않았던 옷들, 일 년간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지는 것이 또 하나의 세부 원칙이었습니다. 보좌신부와 군종신부로 지낼 때까지는 잘 지켜왔던 이 결심이 특수사목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빈민사목위원회 동료신부가 입지 않는 옷을 받아서 재활용한다는 이야기에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입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옷들이 어찌나 많은지 두 박스를 금 새 채웠습니다. 옷들을 전달하고 나머지 제게 있는 물건들을 찬찬히 뜯어왔습니다. 사놓고 입지 않은 책들부터 이사 올 때부터 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했지만 금 새 쓸모가 없어진 물건에서, 깊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주문했던 물건들까지 사제로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 아닌 것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추려보니 성서, 성무일도, 교리서, 교황문헌, 제의, 제구, 수단, 그리고 즐겨 입는 계절 옷들과 노트북 뿐이었습니다. 새 신부 때 결심했던 꼭 필요한 물건들만 모으면 여전히 저의 작은 차 트렁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인간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이것저것 들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 그 행복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그 행복을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영원하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과의 우정입니다. 그분과 매순간 함께하고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 분을 향유할 때 느끼는 행복은 영속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그 우정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후원자 여러분, 예수성심성월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정리해보심이 어떨지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최고의 부자로 지내시는 한 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필리핀공동체 소식*



필리핀에서는 5월 내내 성모님을 공경하고 기리는 축제들을 지냅니다. 성녀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는데 이를 '산타크루잔'이라고 합니다. 산타크루잔은 헬레나 여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십자가를 발견했던 당시를 재연 또는 기념하며 성모님을 모시고 성전에서 성전으로 동정 마리아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이동하는 필리핀 전통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끝은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필리핀공동체도 5월 26일 주일에 필리핀 공동체 센터(성북동)에서부터 혜화동 성당까지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을 진행하였습니다.

남미공동체 소식*

지난 달 26일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세계음식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성북구 세계음식축제인 '누리마실'에 남미공동체도 참가하였습니다. 음식 문화로 하나가 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남미공동체에서도 이주여성들이 직접 참여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 흘려 참가해주신 이주여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베다니아의 집 소식*

베다니아의 집은 최근에 노후 된 곳들을 점검하고 수리하였습니다. 몸이 아픈 이주노동자와 난민들이 머무르는 쉼터인 만큼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시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픈 몸과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일터로의 복귀가 쉽지 않아 생계가 막막한 사연들을 접할 때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쉼터에 머무르는 동안은 편히 쉬면서 빠른 회복과 자립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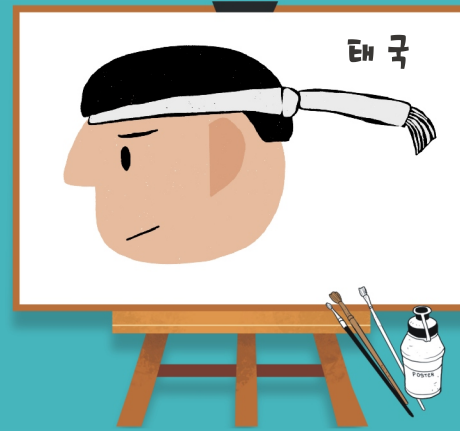


◀ 어린이 잔치

▶ 부모참여수업



문화알림 인기 스포츠 2편



태국의 전통 격투 스포츠인 무에타이는 관광코스에 포함될 만큼 인기 있는 태국의 국민 스포츠입니다. 2천 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스포츠이며 매년 3월 17일에는 무에타이로 유명한 태국의 영웅 '나이 카놈 톨'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무에타이는 태국의 오래된 군사무술 지도서인 '유타사트'라는 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전해오는 만큼 전쟁터에서 전투를 위한 무술이 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에타이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 전 전통 음악에 맞춰 경기장 주위를 돌며 '와이크루'라는 춤을 추는데 이는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모든 대상에게 감사를 표하고 복을 비는 의식이라 합니다.



농구는 필리핀의 국민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으며, 필리핀 대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공터나 골목 사이에서 쉽게 농구 골대를 찾을 수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농구연맹이 만들어졌고 아시아에선 첫 번째로 프로 리그가 탄생했습니다. 농구 외에도 미국의 영향이 큰 종목으로는 야구와 복싱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복싱선수로 이름을 날린 마니 파퀴아오의 성공으로 인해 필리핀 사람들은 복싱에 관심이 지대하며 또한 파퀴아오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남아메리카 국가답게 축구가 인기가 많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피파 랭킹 10위까지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에서 남미의 변방에 속하는 나라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여자 배구입니다. 페루의 여자 배구를 말하려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한국인 박만복 감독입니다. 1970년대에 페루 국가 대표팀에 부임한 이래 여자 배구팀을 남미 최강급 실력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세계 대회에 나가서도 종종 성적을 올렸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결승전에서 은메달에 그쳤지만 박만복 감독은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거의 20년 정도를 페루 감독을 역임했고, 현재도 총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페루 배구의 대부로 불리고 있습니다.